

2015년 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하나님의 왕국의 실재 안에서의 생활

메시지 2

주 예수님의 실재의 빛남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기 위해
어둠에서 나와 빛 안으로 들어감

성경: 행 26:18, 골 1:13, 벰전 2:9, 막 9:1-9, 계 22:4-5

- I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셔서 빛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다 — 골 1:13, 행 26:18, 벰전 2:9.
- A. 어둠의 권세는 어둠에 속한 사탄의 왕국이다. 하나님의 권위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이다 — 마 12:26, 행 26:18.
 - B. 빛에 속한 범위와 영역이 있고 어둠에 속한 범위와 영역이 있다. 이 두 영역들은 두 왕국, 곧 어둠의 왕국과 빛의 왕국이다 — 벰전 2:9, 행 26:18.
 - C.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 빛 안으로 들어갔으며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왔다 — 행 26:18, 골 1:13.
 - 1. 어둠은 죽음 안에 있는 사탄의 표현이며 영역이고 빛은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며 영역이다 — 벰전 2:9, 요일 1:5-7.
 - 2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죽음, 곧 어둠의 영역으로부터 그분의 생명, 곧 빛의 영역 안으로 옮기셨다.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어둠 안에 있었지만 어둠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빛과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옮겨졌다 — 행 26:18.
 - 3.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들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빛 안에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— 골 1:13, 3:4.
 - D. 빛은 다스리는 능력이다. 빛이 비출 때 빛은 다스린다 — 계 22:4-5.
 - 1. 빛은 빛비춤에 의해 다스린다. 생명의 빛이 비추고 다스릴 때 그것이 왕국이다 — 요 8:12, 18:36.
 - 2.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에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는 신성한 빛의 능력에 의해 통제받는다 — 엠 5:8-9.
- II.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변형, 곧 주 예수님의 실재의 빛남이다 — 막 9:1-9, 마 16:28—17:2.
- A. 마가복음 9 장 1 절부터 9 절에서 묘사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그림이다. 이 그림의 중심은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이며 그분 옆에는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 — 마 17:2-4.
 - B. 주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 적셔지고 스며드는 것을 의미한다. 이 변형, 곧 그분의 영광스럽게 되심은 그분이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— 마 17:2.

1.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산 위에서의 그분의 변형에 의해 이루어졌다 — 마 17:1-3.
 2. 주 예수님의 변형, 곧 빛남은 그분이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이었다. 그분의 변형이 있는 곳에 왕국이 오는 것이 있다 — 마 16:28—17:2, 눅 9:27-31.
 3. 주 예수님의 변형은 그분의 존재의 실재화였다.
 4. 왕국은 주 예수님의 실재의 빛남이다. 그분의 빛남 아래 있는 것은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 — 계 22:4-5.
- C. 그리스도께서 씨로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심겨지셨다. 이 씨는 꽃이 피고 영광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 자라고 발전할 것이다 — 막 4:26-29, 골 3:3-4.
1.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의 왕국의 씨이신 그분은 우리 속에서부터 꽃피실 때까지 우리 속에서 자라실 필요가 있다. 이 꽃핍은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의 주님의 변형이 될 것이다 — 막 4:26-29, 골 1:27, 3:4.
 2.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변형되실 때 이 변형은 우리의 생활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— 골 1:13.
 3.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위에 비추심에 의한 주 예수님의 확산이다 — 요 1:4-5, 3:3, 5, 8:12.

III. “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.” — 마 13:43.

- A. 그리스도의 연인은 결국 천체들로 변화된다. 그녀는 새벽처럼 빛을 발하며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다 — 아 6:10 상.
- B. 달은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상징한다. 교회는 해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함으로써 이 시대의 어두운 밤 속에서 빛난다 — 빌 2:15, 고후 3:16, 18.
- C.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재조성하시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해처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분의 날개 속에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시는 의로운 해이시다 — 말 4:2, 마 13:43.
 1. 구원받는 것은 치료받는 것이다. 우리는 빛의 다스림 아래서 빛 안에 삶으로써 스스로 속이는 어둠, 곧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다 — 사 50:10-11, 시 36:9, 마 6:22-23, 골 1:12-13.
 2.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인 다스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등이신 어린양 안에 계시는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.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재이다 — 계 21:23, 22:1, 4-5.